

보도시점 2026. 7. 28.(화) 10:00 배포 2026. 7. 28.(화) 08:00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보완방향을 금융투자업권과 함께 논의했습니다.

- 이덕원 금융위원장, 단일종목 관련 금융투자업권 간담회 개최 -

간담회 개요

이덕원 금융위원장은 7월 28일(화), 금융투자협회장 및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증권유관기관과 함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보완방향을 논의하는 금융투자업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간담회는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 업계가 최근의 상황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함께하고 앞으로의 보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향 관련 금융투자업권 간담회 개요 〉

■ (일시) 7.28일(화) 10:00 ~ 11:00

■ (장소)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

■ (참석자)

- (관계기관) 이덕원 금융위원장(주제),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 송기명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
- (금융투자업권) [증권]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 배광수 NH투자증권 대표,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 [자산운용] 김우석 삼성자산운용 대표, 이준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김영성 KB자산운용 대표, 이석원 신한자산운용 대표,

이덕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의 경과와 출시 이후 시장상황을 설명하며, 수요 안정을 위해 7.16일 발표한 보완방안의 신속한 이행과 함께 추가적인 업계의 협조사항을 당부하였다.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먼저 도입경과와 관련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이미 해외시장에서 거래되며 국내투자자의 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던 만큼, 해외로 향하던 투자 수요를 국내 금융체계 안에서 신용·미수거래 금지, 사전 교육 강화, 기본예탁금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흡수·관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5월 27일 출시된 이후 해외에 상장된 유사 상품의 투자 수요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상품 출시 시점이 반도체 업종 변동성이 높아지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투자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였고, 주가 변동성이 추가로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수요 안정 및 투자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지난 7.16일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보완방안은 투자자 보호 강화와 상품 수요 안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❶신규 상장·광고는 발표 즉시 잠정 중단하였고 ❷기본예탁금을 현금 3천만원으로 강화하는 조치는 7.31일에 앞당겨 조기 시행하고, 최소 매매단위의 확대도 당초 일정보다 먼저 시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❸사전 교육의 평가 강화 및 1시간 추가(사례 중심 교육)도 조속 시행할 예정이며, ❹괴리율 관리 강화도 8.19일 시행할 예정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7.31일 시행되는 기본예탁금 강화 등 보완방안의 정책효과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수요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투자요건 추가 상향과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등* 추가 조치도 미리 검토·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예] ❶주기적 재교육(필요시 모의거래 도입) 및 선행 투자경험요건 신설 등

❷금융투자상품 총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예: 20%) 이내 제한 등 총량 관리 방안

이 위원장은 시장 운영 측면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안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장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업계에도 당부를 하였다.

자산운용업계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리밸런싱이 장 종료 직전에 집중되는 경우 시장 변동성을 보다 증폭시킨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리밸런싱 시점을 분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리밸런싱 시점을 장중으로 앞당길 경우 펀드 수익률의 불확실성이나 추적오차가 확대될 우려도 있을 수 있으나, 종가의 변동성이나 다른 투자자의 예측매매를 축소할 수 있다면 오히려 펀드 수익률의 안정성이 제고되고 운영위험도 경감될 수 있으므로 자산운용사가 그동안 길러온 역량을 바탕으로 시장 안정에 기여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유동성 공급(Liquidity Provider) 업무를 맡는 증권업계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유동성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시장에 일률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업계가 유동성을 스스로 적절히 조절하는 시장 안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끝으로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의 최종 책임자로서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증대되면서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가 흔들리고 있는 점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바,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자본시장 전체의 레버리지 관리를 통한 거시건전성 유지, 코스닥 시장 활성화, 장기투자 유도, 혁신기업 육성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업계도 자본시장을 지탱하는 핵심 플레이어인 만큼, 최고 수준의 책임 의식을 갖고 시장의 신뢰 회복에 함께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였다.

간담회 주요 논의내용 및 향후계획

이 날 간담회에 참여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는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인식에 공감하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보완방안을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자본시장의 핵심 참여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리밸런싱, 유동성 공급 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업계 자율적으로 리밸런싱 분산 방안, 적정 유동성 공급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추진하여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과 체질 개선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관계기관은 7월 31일 조기사행이 예정되어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한편,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전문가·투자자 등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책임자	과 장	최치연	(02-2100-2660)
		담당자	사무관	장지원	(02-2100-2661)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책임자	과 장	고영호	(02-2100-2650)
		담당자	사무관	남창우	(02-2100-2652)
<공동>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책임자	국 장	유석호	(02-3145-6700)
		담당자	팀 장	류지웅	(02-3145-6717)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책임자	국 장	박시문	(02-3145-7580)
		담당자	팀 장	김윤조	(02-3145-7600)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책임자	부 장	정상현	(02-3774-9360)
		담당자	팀 장	이호선	(02-3774-9361)
	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본부	책임자	본부장	천성대	(02-2003-9013)
		담당자	부 장	임병태	(02-2003-9100)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본부	책임자	본부장	이환태	(02-2003-9011)
		담당자	부 장	강민호	(02-2003-9200)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	책임자	본부장	정형규	(02-2003-9014)
		담당자	부 장	김효실	(02-2003-9420)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책임자	원 장	이창화	(02-2003-9800)
		담당자	부 장	이명진	(02-2003-9810)

[1] 단일종목 기반 상품은 지수를 기초로 하는 분산투자 상품이 아니라 하나의 개별 기업에 집중 투자하므로 해당 기업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 단일종목 기반 상품은 분산 효과가 제한되는 만큼, 개별 기업의 악재, 산업환경 변화 등에 따른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해당 기업의 실적, 투자 계획 발표 등 각종 뉴스에 상품 가격이 더 크게 반응할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 단일종목 ETF의 경우 일반 ETF와 혼동하지 않도록 상품 명칭에 'ETF'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단일종목' 상품임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2] 단일종목 기반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단기간에 손실이 확대(지렛대 효과)될 수 있으며, 횡보장에도 손실이 발생(음의 복리효과)할 수 있어 장기 투자 보다는, 단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단일종목 가격이 투자자 예상과 달리 움직일 경우 '지렛대 효과'로 단기간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 단일종목 일일 수익률의 배수를 따르기 때문에 단일종목 가격이 올랐다 내리기를 반복하면 투자금이 녹아내리는 '변동성 잡식 위험*'이 있습니다.
- * <예시> 지수가 20% 하락 후 다시 20% 상승했을 때, 일반 상품(x1)은 100→80→96으로 4%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레버리지 상품(x2)은 40% 하락 후 40% 상승하므로 100→60→84로 16%의 손실 발생
- 이에 적립식 등 장기 투자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단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3] 단일종목 기반 상품은 해당 상품의 구조와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매일 본인의 투자 내역을 점검·진단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新상품에 대한 과도한 기대보다는 집중 투자 위험, 손실 확대 등 특유의 투자 위험을 숙지한 후, 본인의 투자목적, 경험 및 위험 감내 수준에 적합한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정보 확인 경로
기준가*(NAV)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data.krx.co.kr) → '기본통계' → '증권상품(ETF)' → '개별종목 시세 추이' ■ 각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상품별 '기준가' 항목)
분배금	■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seibro.or.kr) → 'ETF' → '권리행사정보' → '분배금 지급현황' ■ 각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상품별 '분배금 현황')
합성총보수(TER)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 '펀드 공시' → '펀드 보수 및 비용' → '펀드별 보수비용 비교'
추적오차·과리율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data.krx.co.kr) → '기본통계' → '증권상품(ETF)' → '세부안내(추적오차율 추이, 과리율 추이)'
투자설명서	■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펀드 공시' ■ 각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상품별 '투자설명서')
자산구성내역(PDF)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data.krx.co.kr) → '기본통계' → '증권상품(ETF)' → 'PDF(Portfolio Deposit File)' ■ 각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상품별 '구성종목' 항목)

* ETN의 경우, 한국거래소 홈페이지(data.krx.co.kr) → '기본통계' → '증권상품(ETN)' → '세부안내(과리율 추이)'에서 종목별 증가, 지표가치, 과리율 일별 정보 확인 가능